

光州日報社·중기청 선정 '이달의 자랑스런 중소기업인' (주)한국에텍

태양에너지 실용화한 벤처기업

올 매출 30억원 목표...해외수출 본격화

“태양에너지는 고부가 시대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대체에너지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태양에너지의 유용성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계획입니다.”

28일 광주일보사와 광주·전남지 방중소기업청이 공동주관하는 '6월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상'을 수상한 (주)한국에텍(북구 월출동 첨단산업단지) 조애숙 대표(47)는 “특히 관련포럼과 전시회 등에 적극 참가, 태양에너지 보급확대의 필요성과 환경개선효과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에텍은 지난해 수출망중소기업에 이어 올해 수출 기업화사업 참여업체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해외수출에 나선 방침이다.

지난 2001년 설립된 한국에텍은 2003년 조선평 실증연구단지에서 산업자원부가 주관한 태양열·태양광 발전시스템 실증연구사업에 참여했다.

2004년에는 중기청이 시행하는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참여, '주석형 태양열 원형집열기를 이용한 고효율 보일러시스템'을 개발하는 개가를 올렸다. 또 2005년에는 제품품질 개선을 통해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한데 이어 벤처기업으로 등록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에텍은 '태양열 집광식 고열집열기', '이동식 전천후용 태양보일러'에 관한 실용신안 2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태양집열판의 열매체 보충방법', '태양광 LED전광판용 발전방법'에 관한 특허 2건을 출원해놓고 있다.



6월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상에 (주)한국에텍 조애숙 대표가 선정됐다. 왼쪽으로부터 백인호 광주일보사장, 조 대표, 장순호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조 대표는 “직원도 10명에 불과하고, 지역에서 태양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한 결과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면서 “앞으로 중기청 등 정부지원사업에 적극 참여, 지역내 최고의 태양에너지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에텍의 연간 매출액은 2004년 5억1천만원→2005년 14억7천만원에서 올해 3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케팅·경영혁신 평가 중소기업 인증제 실시

마케팅이나 경영혁신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중소기업에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실시된다.

중소기업청은 다음달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개발한 조직·마케팅 혁신에 관한 혁신평가 매뉴얼(2005년도 오슬로 매뉴얼)을 토대로 마련된 기준을 통해 뛰어난 경영 능력을 보유한 기업을 인증해주는 제도다.

평가 대상은 설립된 지 3년이 넘는 중소기업이며 평가 항목은 리더십, 인적자원관리, 생산·서비스 운영 과정, 잠재적 기업가치 등이다.

중기청은 온라인 자가진단 점수가 600점(1천점 만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평가를 실시, 평가 점수가 700점 이상일 경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해줄 계획이다.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되면 컨설팅·정보화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제주도 용과 드셔보세요” 농협 하나로클럽 양재점은 28일 제주산 용과를 선보였다. 용과는 속이 하얀 것과 붉은 것 두 종류가 있는데 영양소가 풍부한 건강과일이다. /연합뉴스

경상수지 6달만에 흑자 전환

5월 12억7,000만달러

석달 연속 적자를 기록하던 경상수지가 5월에는 흑자로 돌아섰다.

수출 호조로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커지는데 대외채담금 지급 등으로 두달째 큰 폭의 적자를 보이던 소득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것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중 국제수지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는 12억7천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경상수지는 올해 1월 9천만달러의 흑자 이후 2월 7억6천만달러 적자, 3월 4억3천만달러 적자, 4월 16억1천만달러 적자 등으로 석달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왔으나 5월들어 일단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경상수지가 6달만에 흑자로 돌아



온데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확대되고, 그동안 두달 연속 적자를 보이던 소득수지가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상품수지 흑자는 수출 호조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8억4천만달러 늘어난 27억3천만달러로 집계됐다.

소득수지는 특히 외국인 주식매매액 대외송금 수으로 3월 14억7천만달러 적자, 4월 18억8천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5월중에는 대외채담금 지급하면서 3억9천만달러 흑자로 전환됐다.

서비스수지는 운수수지 흑자규모가 커진 가운데 기타 서비스수지 적자 폭이 확대됐으나 여행수지 적자규모가 전월과 비슷한 8억9천만달러를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는 13억5천만달러의 적자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정몽구 현대차 회장 보석 석방

해외 대형사업 '박차'

체코·美·동남아 공장 설립 본격 추진 판매 부진·노조 파업 등 해결 과제로

법원이 28일 현대차 정몽구 회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함에 따라 정 회장의 구속으로 그동안 보류되거나 차질을 빚어왔던 현대차의 각종 대형 사업들이 정상화될지 주목된다.

그동안 정 회장의 부재로 인해 차질을 빚어왔던 현대차의 체코 공장이나 기아차의 미국 조지아공장 등 굵직한 해외사업 프로젝트가 더이상 미루 수만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 회장이 보석으로 풀리면 경영일선에 복귀해 이처럼 산적해 있는 회사의 현안들을 우선 해결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는 10억유로를 투자해 2008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체코 노세비체에서 연산 30만대 규모의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기공식이 무기

연기된 상태다.

현대차는 지난해 체코와 투자협정 계약을 체결하기는 했지만 이후 예정됐던 본계약이나 공장 기공식 등을 연기한 채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현대차는 정 회장의 부재로 그동안 현지에서 주민이 주나 환경보전대책 수립, 주정부 인허가 신청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체코 정부 및 주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기아차도 미국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시에 2009년까지 12억달러를 투자해 연산 30만대 규모의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으나 역시 지난 3월 계약 체결한 채 착공을 미뤘었다.

기아차는 또 동남아 시장 개척을 위해 이 지역 국가 가운데 한 곳에

CKD(현지 조립생산) 공장 건설에 들어가 1차로 2009년까지 승용차와 RV 등 10만대 규모의 공장을 건립하고 이후 생산규모를 20만대 추가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으나 정 회장 구속 직후 계획을 백지화했다.

정 회장은 해외 공장건설 프로젝트 외에도 판매감소와 수익성 하락, 노조 파업, 글로벌 경쟁력 회복 등의 과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

현대차의 4월 내수판매는 4만4천44대로 3월보다 14.4%, 작년 4월에 비해서는 1.5% 각각 감소했으며, 5월 내수판매량은 4만5천대로 전달보다 2.2% 늘었지만 작년 동기보다는 1.8% 줄어드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현대차 노조가 올해 임단협의 결렬을 선언하고 지난 26일부터 부분파업을 진행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이라서 노사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재계 “보석 환영...경제활성화 이바지할 것”

법원이 28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기로 결정하자 그동안 선전해 단련해 왔던 재계는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현대차는 이날 내놓은 공식입장을 통해 “재판부의 결정에 감사드리고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히고 “정 회장이 악화된 건경을 추스르는 차원에서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정 회장에 대한 보석허가는 현대차

동차와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잘 됐고 반가운 일”이라며 “현대차그룹 노사가 합심해 경영에 차질이 오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해 우리경제 발전에 기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현대차그룹의 경영을 조기에 정상화시키고 동시에 우리 경제 전반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상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충

분한 수사가 이루어진만큼 향후 재판과정에서는 국가경제와 기업인의 사기, 대외신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도 “환을 하락과 고부가 등으로 어려운 때 보석허가가 남으로써 현대차가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과 어깨를 나란히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국민·신한銀 M&A 활발

〈인수·합병〉

금융권 상반기 결산

2006년 상반기 금융권은 인수·합병(M&A)이 계속되면서 어느 업종 못지않은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특히 외환은행과 LG카드 같은 초대형 매물로 업계 관도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됐고, 은행간 영업 경쟁수위도 갈수록 높아졌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주택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았지만 주식 변동성과 무관하게 각종 수익증권이 인기를 누리는 등 자금시장에도 새로운 변화가 감지됐다.

연초부터 금융권을 뜨겁게 달군 이슈는 외환은행 인수전. 지난 3월 국민은행이 외환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되고 지난달 19일 본계약이 체결되면서 통합 국민은행은 총자산 271조원(작년말 기준)의 초대형 은행으로 재탄생하게 됐다.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이 합병한 통합 신한은행도 2년여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4월1일 공식 출범하면서 총자산 163조원의 국내 2위 은행으로 올라섰다.

현재 신한지주와 농협, 하나지주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 LG카드 매각도 하반기 은행업계와 카드업계 관도를 통째로 바꿀 만한 메가톤급 소재다. LG카드를 실질회원수 1천만명, 총자산 11조원 수준으로 은행 연합체인 비씨카드를 제외하고 업계 1위.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M&A를 통해 외연을 일시에 확대한 데 반해 대형 인수전에서 제외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적극적인 영업전략으로 외환확대에 나섰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통합 조직을 추스르고 고객이탈 방지에 간간힘을 쓰는 동안 우리와 하나은행은 출혈경쟁까지 감수하면서 고객기반을 확대했다. 이는 역마진

수준까지 대출금리를 인하해주는 등 치열한 국지전으로 이어졌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치열한 경쟁속에서 사상 최대 순이익 행진을 이어갔다는 점도 올 상반기 은행권의 특징 중 하나다. 이는 자산건전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대손충당금 부담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국내은행의 올 1·4분기 순이익은 3조5천억원으로 작년동기 대비 26.5% 급증했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1·4분기 당순이익이 4천40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3천620억원)에 비해 무려 21.6%나 증가, 분기기준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신한지주도 4천763억원의 순이익으로 사상 최대규모 분기수익을 거뒀다.

국민은행과 하나금융지주도 같은 분기 8천30억과 3천21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올려 증권가의 예상치를 뛰어넘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아파트 대출 환영

月0.58%(年7%)

시중은행대출과 같습니다.

정기예금 年 5.32%

무등저축은행

광주광역시 동구 용봉로 412-9 11층(동대문로) 209호

T. (062) 223-5506

대부업체 “금감원 감독 받게 해달라”

대부업체가 일정기준 이상의 대형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8일 대부업체에 따르면 업계는 최근 한나라당 임호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체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을 계기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임 의원을 비롯한 의원 12명은 지난 14일 이용자가 많은 대부업체 등에 대해 금감원이 상시적으로 감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사·도지사에 통보토록 하는 내용의 대부업체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지방자치

단체 감독방식은 소형사 불법영업 단속에만 신경을 쓴 대규모 업체 영업행태에 대한 금융시각적 감도를 전무한 상태”라면서 “일정규모 이상 대부업체는 금감원에서 직접 감독하고 소형 업체들은 현행대로 지자체에서 감독하는 ‘감독의 이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미감일	연락처
한국쓰리엠(주)	한국쓰리엠(주) 신입 및 경력사원	대졸/경력무관	3,000~3,200	06/30	061-330-7012
(주)케이스	(주)케이스 영업사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6/30	062-236-1688
(주)상문개발	경력직(재개발/재건축/주택사업 부문)	초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06/30	02-485-7100
지.비.세 유통(주)	정규직 PC.POWER A/S 기사(서울근무)	고졸/경력1년	1,600~1,800	07/02	062-350-8170
가인아트	실사출력실 디자이너	초대졸/경력2년	1,400~1,600	07/03	062-233-0995
광주인터넷방송	웹디자인이나 또는 홈페이지 구축 가능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03	070-7017-1229
LG이노텍	LG이노텍 사무지원 및 임원비서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7/03	062-950-0458
(주)한진디엔비	무역사무원	초대졸/경력무관	2,200~2,400	07/04	062-953-4510
(주)HRN	SKT 미납상담 및 CRM 상담직(동시지원가능)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7/04	062-529-2671
동화산업(주)	경리업무 담당	초대졸/경력1년	1,400~1,600	07/05	062-952-5171
신일가스(주)	신규영업, 영업관리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07/07	062-951-0011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